

마음 비운 최원준 “최대한 많이 나가고 들어오겠다”

상무야구단 전역후 KIA 톱타자 중책 아쉬운 성적표

“생각 많고 준비 부족 절감...나만 잘하면 후반기 반등”



KIA 타이거즈의 '예비역' 최원준이 순위 싸움을 위해 생각을 줄였다. KIA는 시즌 중반 새 전력에 생겼다. 상무야구단에서 군복무를 했던 최원준이 전역해 6월 13일 KIA 유니폼을 입고 다시 그라운드에 섰다.

호타중족 그리고 강건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원준이 돌아오면서 KIA는 외야의 옵션을 넓혔고, 부상이 겹친 1루 자원으로 최원준을 활용해 타선을 강화했다.

하지만 활황도 높은 최원준의 가세에도 전반기 KIA의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최원준 개인의 성적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반기 23경기에 나온 최원준은 87타수 21안타, 0.241의 타율을 기록했다. 8개의 볼넷을 골라냈지만 15차례 삼진으로 몰라나기도 했다.

최원준은 “생각이 많았다. 준비가 부족했다”며 전반기를 자평했다.

최원준은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며 “1군에 맞춰 준비를 잘 못했다. (시즌 초반) 어깨가 아프면서 퓨처스에서 제대로 정립 못하고 와서 생각이 많아졌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타율 1위로 KBO리그 시상대에도 올랐던 최원준이지만 부상 여파 등으로 구상과 다른 시즌이 전개됐다.

최원준은 “군대에서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변화도 주고 바꿨는데 초반에 생각이 많았다. 군대 가기 전인 2021년에는 납득할 수 있는 아웃들이 나왔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죽더라도 그런 타구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 많았다. 신인 때도 거기에 빠져서 생각이 많았는데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 쉽게 헤쳐

나갈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시즌 중반 전역한 만큼 적응 시간도 필요했던 최원준. 좋았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후반기를 위해 칼을 갈았다.

최원준은 후반기 시작에 앞서 “적응도 끝나고 편해졌다.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것 같다. 결과를 떠나서 타격 코치님들과 이야기를 했고, 좋았을 때로 돌아가기 위해 같이 연습하고 연구했다.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말라고 하셨는데 좋아지는 것 같다”며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단기간에 확실히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하다 보면 노력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자신감을 보였던 최원준은 후반기 두 번째 경기에서 복귀 후 첫 홈런과 3루타도 장식하면서 기대했던 모습을 보였다. 시원한 장타 실력을 보여줬지만 입대 전 목표로 했던 ‘중장거리 타자’로의 변신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를 계획이다.

최원준은 “아마추어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프로에 온다. 내가 멀리 칠 수 있다고 해서 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투수들은 아니다.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올해는 그대로 가고, (나)성범이 형이랑 웨이트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드’에 대한 자신감을 넘친다. 톱타자 역할을 맡고 있는 최원준의 앞뒤로 ‘도루왕’ 출신의 박찬호와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스피드의 김도영이 배치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누리고 있다.

최원준은 “나만 잘하면 될 것 같다. 주자로 나가면 들어올 자신은 있는데 나가지를 못했다. 나만 잘하면 우리 팀 타선이 좋을 것 같다. 후반기에 많이 나가고 들어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원준

개인전 마친 황선우, 한국수영 첫 단체전 메달 도전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

오늘 남자 계영 800m 출전

황선우(20·강원도청·사진)는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며 개인 종목은 물론이고, 단체전에서도 메달 획득을 꿈꿨다.

개인 종목 일정은 모두 끝났다. 이제 동료들과 함께 쉰 ‘한국 수영 사상 첫 단체전 메달’의 꿈을 향해 역행한다.

26일 자유형 100m를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개인 종목을 마친 황선우는 이제 최대 4번의 계영 출발대 출격을 앞두고 있다. 28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계영 800m 예선과 결승을 치르고, 대회 마지막 날인 30일은 혼계영 400m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국 수영 대표팀은 이번 대회 계영 800m를 ‘메달 목표 종목’으로 지정해 맹훈련을 소화했다.

한국 경영 선수들의 기량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제 한국 경영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바라볼 위치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 계영 800m에서 한국은 예선을 4위로 통과하는 파란을 일으킨 뒤 결승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6위를 찍었다.

예선 7분08초49, 결승 7분06초93으로 두 차례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다. 7분06초93은 이번 대회 황선우와 동료들이 넘고자 하는 기존 한국 기록이다.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는 황선우와 김우민

(강원도청), 이우연(고양시청), 이호준(대구광역시청)이 200m씩 나눠서 책임졌다면, 이번 대회는 이우연 대신 지난 3월 자유형 200m 대표선발전 4위를 한 양재훈(강원도청)으로 영자가 바뀌었다.

한 사람이 200m씩 역행하는 계영 800m는 세계선수권대회 메달과 황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내건 종목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세계선수권대회 계영에서 메달이 없다. 아시안게임 최고 성적도 1994년 히로시마 대회 남자 계영 800m 은메달(지상준, 우철, 우원기, 방승훈)이다.

선수 면면과 준비 과정을 돌아보면, 현재 남자 계영 800m는 한국 수영 역사상 최강 ‘드림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자 계영 800m는 기록만 놓고 보면 영국과 미국이 크게 앞서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다투고, 우리나라와 중국, 호주가 동메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형국이다.

특히 중국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을 놓고 경쟁할 상대다.

황선우는 30일 혼계영 400m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이주호(배영)~최동영(평영)~김영범(접영)에 이어 물에 뛰어들어 100m를 자유형으로 역행하면 황선우의 후쿠오카 세계선수권대회는 막을 내린다. /연합뉴스



최병화가 27일 일본 후쿠오카 시사이드 모모치 해변 공원에서 열린 2023 세계수영선수권 하이다이빙 경기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하위 최병화 ‘위대한 도전’ 마무리

한국 최초 하이다이빙 출전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경기에 출전한 최병화(31·인천광역시체육회)가 한국 수영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대회를 마감했다.

최병화는 27일 일본 후쿠오카 모모치 시사이드 파크에서 열린 2023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남자부 27m 경기 3·4차 시기에서 113.10점을 추가해 1~4차 시기 합계 187.50점으로 출전한 23명 가운데 순위표 가장 아래에 자리했다.

앞서 25일에 열린 1·2차 시기에서 74.40점을 획득했던 최병화는 3차 시기에서 앞으로 뛰어 다리를 쭉 편 채 양손으로 감싼 파이크(Pike) 자세로 3

바퀴를 돌고 몸을 반 바퀴 비틀어 입수하는’ 난도 3.4의 연기를 펼쳐 56.10점을 더했다.

마지막 4차 시기에서는 3차 시기와 처음 뛰는 방향만 반대로 다른 동작은 같은 난도 3.8의 연기로 57.00점을 추가하고 경기를 마쳤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종목 가운데 가장 부상 위험이 큰 하이다이빙은 별도의 결승 없이 1~4차 시기 연기로만 순위를 가린다.

남자의 경우 아파트 10층 높이인 27m에서 뛰어 내려 입수할 때 최고 속도는 시속 90km에 이른다.

여자는 그보다 7m 낮은 20m에서 점프한다.

입수할 때 다치는 선수가 워낙 많아서 안전 요원이 입수 풀 근처에 4명씩 대기하고, 선수는 연기를 마친 뒤 자신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최병화는 대한민국 1호 하이다이빙 선수다. /연합뉴스

음바페 사우디 안간다

알힐랄 1조원 제의 거절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의 슈퍼스타 킬리안 음바페(24)가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의 ‘1조원’ 제의를 거절했다.

프랑스 스포츠 전문지 레퀴프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알힐랄 관계자들과 만남을 음바페가 거부했다고 2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알힐랄 관계자들은 제니트(러시아)에서 뛰던 브라질 공격수 말콤 영입을 마무리 짓기 위해 파리를 방문했다. 앞서 PSG는 음바페 이적료로 3억 유로(약 4260억원)를 제시한 알힐랄의 제의를 받아들인 터였다.

현재 매체들은 알힐랄이 음바페를 설득하기 위해 연봉과 보너스, 추가 상업적 수익 등을 합쳐 총 7억 유로(약 9878억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1조원을 싸고 오겠다는 알힐랄 관계자들을 음바페가 ‘문전박대’한 모양새다. /연합뉴스